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29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4월 29일(음력 4월 5일) 수요일(주간) A03

"지금 여기의 당신이 부처입니다"

초파일 맞아 각 종단 지도자 '지혜와 자비의 삶' 강조 … "나눔과 화합이 고통 극복의 열쇠"

"오늘은 뭇 생명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미혹도 깨달음도 다 버리고 부처와 범부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분이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봉축법어의 첫 머리에서 부처님오신날이 역사 속의 부처님 즉, 고타마시타르타가 탄생한 날의 의미와 앞으로 성불하여 부처를 이룰 뭇 중생들의 자존을 밝히는 날임을 천명했다.

부처님의 탄생이 갖는 역사적 종교적 의미는 이미 부처님의 탄생게에서 드러나고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부처님의 탄생게는 일체 생명은 하늘과 땅위에 가장 위대한 존재임을 선언했고 일체의 고통을 끊어 대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밝혔다. 그래서 부처님오신날은 '뭇 생명이 태어나는 날'이고 '부처와 범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날'인 것이다.

그렇다면 '삼계개고' '부처와 범부의 얽매임'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이 길이 바로 불교의 길일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봉축사가 그 길을 설명하고 있다.

"탐욕의 불꽃이 보시의 강물로 흐르는 어느 날, 분노의 불길이 자애의 구름으로 변화하는 어느 날, 사견의 칼날이 꽃잎으로 변하여 허공을 채우는 그 모든 계절에 부처님들은 출생 하신다"고 전제한 지관 스님은 "번뇌의 중생계가 다하는 날은 기약할 수 없으며 고통의 바다 아닌 곳 또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고통받는 중생들과 동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통 받는 중생들과 동행하는 일'이 곧 '부처님들이 출생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실천궁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혜와 자비의 구족,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이다. 부처님 오신날은 바로 일체중생이 부처로 오시는 날이기에 '깨닫지 못한 부처'인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의 삶을 새롭게 서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오늘 바로 이 자리, 우리 곁에 있는 내 이웃과 가족, 사랑하는 이와 미워하는 이 그리고 모든 생명이 살아 있는 부처"임을 강조했다.

자신의 안살림을 끊임없는 기도와 정진으로 가꾸는 사람은 누구나 수행자다.

안살림을 잘 사는 사람은 '부처와 범부의 얽매임'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자리에서 자애를 펼치고 나눔을 실천할 때 보살도를 실천하는 참불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하여 우리의 삶을 한 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살필수록 부처님의 모습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라고 반문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부처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처일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반대쪽에서 말과 글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행동은 마구니를 좇고 있지나 않은지 살피고 살필 일이다.

'나눔'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정갈한 바깥살림이다. 부처님의 모습을 가장 닮아가는 지름길이 바로 '나눔'인 것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뒤 줄곧 법을 나누는 생활을 하셨다. 부처님이 나눠주신 법이 없었다면 오늘날 중생계는 더욱 혼란스럽고 어두울 것이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라고 했듯이 어려울수록 더 큰 자비심으로 베풀고 공양하여 공덕의 숲을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진각종 총인 도흔 정사의 "자비행의 실천과 희사의 참 정신을 전하는 초발심을 내고 불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추어 상생과 화합으로 상호 공양하는 인류공존과 공영의 길을 서원하자"는 당부도 불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금언(金言)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환희와 찬탄 그리고 나눔과 화합

부처님오신날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되고자 서원하는 날입니다. 이모그래픽은 이를 작업한 불(佛)자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 사람이 함께 손잡고 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탄생불의 모습을 친견하시나요? 아이와 어른이 손잡고 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무엇이든 보이는 그대로가 부처님 세상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우리는 모두 부처입니다.

이모그래픽 "허회태(서예가)

봉축특집 64면 발행 지면안내

■성열 스님 특별기고 '신화 속 붓다 역사 속 붓다' A4~5면
■도반의 향기 자연요리연구가/임지호 A11면
■각종단 지도자 봉축사 A12~13면
■선지식을 찾아서/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성수 스님 A16~17면

봉축마당
–부처님오신날에 만난 비구니 스님/성경스님 B2면
–히말라야 풍경 B3면

정진마당
–불보살상 구별 어떻게? B4면
–팔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B5~10면

행복마당
–버스기사들의 신행이야기 B11면
–5월 '기념일'에 가볼 만한 절 B13면
–사찰순례 윷놀이 B15면
–지하철 사찰순례 20 B16~17면

건강마당
–연꽃 피면 건강도 핀다 B19면
–건강을 위한 아행가요가 12 B20면

나눔마당
–불교계 국제구호활동 현황 B25면
–국제구호활동을 이끄는 불자들 B27면
–불교계 기부보살들 B30면

법구경
이 몸은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나니
이 마음을 튼튼하게 정비하라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www.buddhabook.co.kr
02_3672-7181~5
운주사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황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저소득·실직가정을 위한
자비나눔
자비나눔 기금은,
저소득 · 실직가정을 위한 긴급생활지원, 난치병치료비, 청소년 희망지원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 실직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무원 인턴제 등 각종 기금으로 사용 됩니다.
희망의 등달기
이웃을 위한 마음도 함께 담아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립시다.
등공양비 중 1,000원은 이웃을 위해 사용 됩니다.
1배 100원 모금법회
3월 27일(금, 초하루) 오전 10시, 전국 모든 사찰에서
이웃을 위한 1배 100원, 108배 기도를 통해 기부를 실천 합시다.
한끼 나누기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가족 모두 한끼(1인당5천원)를
이웃과 나눕시다. 사찰은 쌀독을 설치하여 이웃에게 회향합시다.
자비나눔 통장
국민은행 023501-04-142119 / 농협 317-0000-1627-11
예금주 (재)아름다운 동행
자비연꽃 달기운동
기부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달아주는 연꽃 뱃지입니다.
(보급 1천원, 문의 :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02-737-9595)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www.buddhism.or.kr 주관 조계종 총무원 /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www.therarum.org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553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종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중앙종회의장 보 선
호 계 원 장 법 등
총무원장 지 관
포 교 원 장 혜 총
교육원장대행 법 장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